

연중 제31주일

기도서 470 면

제 1 독서 : 신 명 6, 2-6

제 2 독서 : 히 브 7, 23-28

복 음 : 마 르 12, 28b-34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강론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조 정 오 신부

오늘, 복음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만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말마디도 없을 것입니다. 대중 가요의 주제도 수 많은 문학 작품도 모두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인간들의 희비극 때문에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 어려운 정의도, 사랑만큼 어려운 행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행동양식입니다. 오른발을 내디디면 왼발이 뒤로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행동양식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 그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희망과 풍요가 있습니다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전쟁과 슬픔, 절망과 가난이 뒤따릅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곳만을 천국이라 하며, 사랑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타인중심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오지만, 사랑이 없을 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빠지게 합니다. 타인중심적인 사랑은 무한한 개방성의 바다에 희망의 뜻을 달지만, 자기중심적 생활을 너와 내가 넘나들 수 없는 절망의 담을 쌓아가 마침내는 폐쇄된 우물의 고립에 빠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형제들이여!

사랑만이 건설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그러나 여러가지겠지요. 나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봉사도,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나누는 것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려는 인내도 모두가 사랑의 방법들입니다. 세상이 온통 이렇게 다른 이를 위해서 무언가 사랑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로 꽉 메워질 때 그곳은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모두 작은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함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진정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했는지요? 내 자신에게 겸손을 매듭시다. 낙제 점수일 것 같으면 가슴을 치며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을 소홀히 한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청합시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얼어버리지 못하게, 우리가 사랑의 불을 놓읍시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임실 성당 주임신부)



주제 파악

'주제파악 좀 잘하라'는 유행어가 있다.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겠다. 오래 전부터 써온 우리네 표현으로는 '분수를 알라'는 말이고. -자신이 처해 있는 꼬락서니를 모르고 날뛰는 것처럼 불쌍 사나운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한 번 쬐은 거울로 삼아야 할 명제임에 틀림없다. 그런 모습은 남이 보기에는 안타까우고, 자신에게는 눈앞에 닥쳐오는 종말을 모르는채 날뛰는 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면, 자꾸만 일을 벌여 분수에 맞지 않게 지출하는 것도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살림이 어려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허티며를 즐라 매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위에서부터 수범을 보여야 한다. 어려우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다하는 것은 허세에 불과하다. 관제있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크게 떠벌려, 없는 돈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옛그제 있었던 도민의 날에 대해서도 한 번 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닭잡기나 돼지몰이는 동물 애호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쨌든 능력껏 살아가는 태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체나 직장은 물론, 한 나라의 살림에 이르기까지 처지에 맞는 생활태도가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살펴야 한다.

오늘, 전주교구 평협이 신앙대회를 갖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신앙인, 특히 일선에서 사도적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야 할 좌표가 어디인가를 읽어보자는 것이다. 우직한 물음같지만, 평신도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있는지, 다시 살펴자.

숲 정 이 산책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눌시다

전교의 달을 보내면서

□ 신심단체 1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레지오 단원의 공동 활동

그리스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내적으로 신앙을 생활화 하는 것이 첫째요, 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사목자와 신도들이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가운데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그 자체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화요 선교입니다¹⁾. 가톨릭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²⁾ 레지오 단원들은 누구에게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³⁾ 이 세상에 자기들 심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윗사람으로서 아래사람을 동배로서 동배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요 “아래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중으로서 주님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여 활동의 각 대상자 앞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합니다.”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⁵⁾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레지오 교본은 복음선포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성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⁶⁾.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⁷⁾. 신구약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으로써 하느님을 계신 그대로 대면해 봐야 할 때까지 그 거울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며 모든 것을 받습니다⁸⁾.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언제나 친절히 만나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⁹⁾.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여 성경과 친숙해져야 합니다¹⁰⁾.

모든 평신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찬양 복음을 알아 듣고 받아들이도록 활동 해야 할 영광스러운 임무와 빛나는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며¹¹⁾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통감하여 자기 자신들 안에 참으로 가톨릭 정신을 기르고 복음 선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¹²⁾. 그러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첫째이며 최고의 의무는 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¹³⁾. 사도직은 생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참된 사도직은 말로서의 사도적 수행이 절대로 필요합니다¹⁴⁾.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책임이 평신도들에게 있으며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부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¹⁵⁾.

—피미시움—

- No.1—15 참조 : 1(‘82.사목교서), 2(1 배살 5,10), 3(교본 495년), 4(교본 399년), 5(사도 17,28), 6(제시11), 7(제시 25), 8(제시 7), 9(제시 21), 10(제시 25), 11(교회 33,평신도 3), 12(교회 35), 13(선교 36), 14(평신도 16), 15(주교님 취임사)

그리스도 교회의 목표와 사명이 복음 전파와 민족 복음화에 있으므로 우리는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선교 활동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에 가입하여 토요일 오후와 주일이면 연중 예외 없이 브레시디움 공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활동은 주일 공식미사 후 주회를 마치고 시작 되는데 먼저 성체대전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도우심에 매달리는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등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분식으로 점심을 먹은 다음 신부님, 수녀님의 소개나, 입교를 원하시는 분, 외곽 교우, 쉬는 형제, 환자, 상가(喪家) 연도, 교리반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 가정, 결석 단원,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 주로 도침지를 중심으로 심방합니다. 성가, 성경, 기도, 대화를 통하여 활동 대상자를 주님을 섬기듯이 모시며 깊은 친교로써 기쁨, 평화, 사랑, 정의의 하느님을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마치 피정의 연속인 실습과도 흡사합니다. 활동중에는 전혀 반응이 없던 분도 계속 활동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열심히 활동 하다 보면 활동 대상자 보다 먼저 활동 단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림을 알 수 있고, 활동은 성화의 방법임을 느끼게하고, 우리에게 한 없는 기쁨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정의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빈틈 없이 완전 구결하게 돌보시어 매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모든 단원들은 한결같이 가장 보람된 하루를 보냈음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결핵식 참석, 관광여행, 제모임 등으로 허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지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중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동활동을 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이야말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성모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의 어느 권력자보다도, 억만장자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모든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공동활동을 쉬지 않고 즐기차게 하여 복음 선포와 민족 복음화 운동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 하신 특권과 은사를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활 환경 속속들이 머무르도록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전력투구 할 것입니다.

—피미시움—

□ 안녕히 다녀오세요!
 <성모 기사회 일본국
 성지순례단>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 대리점 개설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전 화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걸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어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피 노 키 오
	세계적인코트의명문		아 동 북
	챌 린 저		전주시 중앙동 3가
	주 니 어 북		삼화약국 옆 ④4451 주인 유 율리안나



□ 금요 성경 강좌 개강

1. 개 강 : 11월 5일(금) 저녁 7시 30분
2. 내 용 : 매달(4주) 성경 한 편씩
3. 11월의 강의 : 마태오 복음
4. 회 비 : 1,000원
5. 접 수 : 가톨릭 센터 사무실(전화 ⑥ 0041·0042)
전화로 신청하시고 강의 당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수류본당 성심 유치원에 놀이 기구 증정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류 성당에 그동안 놀이 기구가 없어서 유치원생(50~60명)들의 지도가 어려웠다. 수녀님 혼자 5~8세의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안간힘을 쓰셨지만 유치원 시설은 온돌방 3~4명짜리 하나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시는 신부님과 교우 한 분이 지구 놀이와 씨소 2개(30여만원 상당)를 기증하셨다. 아침 6시~저녁 8시까지 애용하는 귀여운 꼬마들의 좋아하는 환호 소리가 산골 성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 교리교사 연합회 지구장 모임

지난 24일 교리교사 연합회는 센터에서 제 2차 지구장 모임을 갖고 그동안 발행되었던 어린양에 대한 평가와 연합회의 활성화 모색 및 내년도 교재 선택에 관한 문제를 토론했다. 이날 모임에는 1, 3, 4, 5지구의 지구장이 참석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어린양은 그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교리교육의 보충교재 역할과 어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땀소니 아동들을 제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저학년 아동들은 4면 만화에 제일 관심을 보이고 함께 색칠도 하며 교학년들은 골고루 다 읽어 볼 뿐만 아니라 매주일 주보를 철하면서 수집 정리하는 습관도 길들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은 아동들에 비해 어린양의 부수가 너무 적어 매주일 고루 나누어 주기에 고심하고 있고 차폐가 돌아오지 않는 저학년들의 차별대우 한다는 마음 아픈 불평도 들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부족한 공소 아동들도 어린양을 받아 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어린양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중·고 학생 지도자 모임

지난 26일 중·고등 학생 지도자 20여명은(전주시내 본당 8개와 둔용동, 함열) 센터 3층 평협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그동안 소홀했던 중·고등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고 학생들의 바른 종교 교육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오늘 이 모임은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내다 보았다. 재 모임은 10월 31일 신앙대회 제 3부에서 만나기로 하고 12월중에 창립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 신간소개 * **즐거워 하라**

H.하아크 지음 김 윤주 역음. 분도 출판사 30절판 1982.9.15 발행. 128면 값1,200원

이 소책자는 구약성서 사람들의 인생관을 소개했다. 여기에 소개하는 4개의 주제는 창조, 자연, 남녀의 사랑, 삶의 기쁨이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영했는지를 이 주제에 대한 구약성서 본문을 전반적으로 인용하면서 해설해 놓았다.

요심이 (482)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밤 고 보호하는
눈을 편 하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 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선

실내장식·조경·가옥수리
건축일철·페인트

화석 인테리어

전화 ① 0265

이 중화(바오로)
김 병석(스테파노)

□ 각종 신발 도산대

새 마을 신집

숙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옆
(대지복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주단·포복(훈수·회갑옷
감)드매상
각종 숯, 이불(밍크)카레지
도매상

서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82 교구 평일 신앙대회: 3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해성 중·고 강당
내용-특강·미사(주교님 집전)·우정의 잔치, 대상-제 단체 임원
- 군중 후원회 월례회 미사: 11월 1일 오후 7시30분, 센타 3층
- 사제 평의회: 11월 4일 오전 10시, 교구청
- 금요 성경 강좌 개강: 11월 5일<금> 저녁 7시30분, 접수-센타 사무실
- 성심 여중·고 견진: 11월 6일 오후 2시30분
- 교구 사제 연례 피정: 11월 8일~12일

(중양)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호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 ☆ 성경읽기: 목시 7장~9장
 - 1. 사도회 상의위원회: 11월 6일<토> 오후 7시30분
 - 2. 위령의 날: 11월 2일, 저녁 7시 합동연도 있음
 - 3. 연도대회: 11월 7일<일> 오후 2시 강당
참가대상-제 단체, 중목-성인→임종경·학생→연도
 - 4. 성심부녀회: 5일<금> 어머니미사 후
 - 5. 베소라 성서연구: 11월 19일부터 매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 교재대-2천원
 - 6. 부활교리: 14일<목> 오후 7시30분, <일> 11시 30분
 - 7. 사진 찾아가세요: M. B. W 참가한분(1매-1,500원)
 - 8. 성전 신축헌금 십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재성·이진희(30만원), 장남수(50만원), 정인섭·심연우·광원식(각 20만원), 윤중순·이영훈·최정문·최순배(각 5만원), 임주남(15만원), 박현숙·김기섭·변길애·최효순·장창기·김윤진·백금순·유인기(각 10만원), 김정자(16만원), 안예숙(6만원), 김복배(2만원), 최영희·박화순(각 1만원)
누계-93,623,000원
- 지난주 봉헌금: 668,113원 교무금: 761,000원

(노송동)

신부 ⑩0969번
수·사 ⑩7032번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 모든 성인의 날: 1일<월>-8일, 많은 참여 바람
 - 위령 합동미사: 2일 오전 10시30분, 오후 6시30분
 - 송수녀·최수녀님: 떠나시는 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 나의 이웃 교우를 파락합시다: 다음주(7일)까지
주소와 성본명을 적어 사무실에 접수(10세대 정도)
 - 주치의 전례담당
배침미사: 해설-은경순, 독서-①서용문 ②한기호 ③서성남
공식미사: 해설-김영옥, 독서-①모모일 ②서성남
저녁미사: 해설-박은경, 독서-①유철희 ②박민숙
공식미사: 기도 봉헌-황시연·정순자
- 지난주 봉헌금: 307,200원 교무금: 221,7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 미사시간 변경: 월요일-오전 6시, 화~토요일-저녁 7시 미사로 변경, 목요일은 오전 6시·저녁 7시
 - 구역 가정방문: 1~5일-금양동 전지역, 15~18일-덕진동 전지역, 22~26일-송천동 전지역, 29~31일-팔복동 전지역 ※ 가정방문시 증명사진 1매씩 준비
 - 금년 가을 판공식: 가정방문시 생사포 드림.
해당 방문일정인 주간에 생사 보일 것
 - 젊은이 모임 날짜 변경: 일요일 저녁미사 후로 변경
 - 전화번호, 주소 변경되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 바람
 - 오늘 진복회 월례회의: 꼭 참석 바람
 - 가정미사 신청: 매주 화요일·수요일
- 지난주 봉헌금: 439,41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위령 성월(미사후 위령성월 기도함)
- 1일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2일은 위령의 날
- 첫 철례 6: 11월 5일<금>: : 저녁 7시
- 첫 철례 7: 11월 6일 저녁 7시
- 사도회: 다음주(7일) 공식미사 후
- 주일학교 소풍: 7일 오전 8시30분 성당에 집합
- 가정방문: 2일<월>-화산동1·2반, 4일<목>-태평동1·2반, 5일<금>-태평동3·4반

- 부녀회: 1일 어머니미사 후
 -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고희구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김성원 ②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345,520원 전교주일헌금: 47,09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보좌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김명환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유아세례: 매월 첫주일 오전 9시30분, 시간 엄수
 - 예비신자 교리: 공식미사 후-성인반, 목요일 저녁 8시-젊은이, 토요일 오후 5시-중·고생
 - 가정방문: 11월 3일-10반, 4일-9반, 5일-8반
 - 할머니회 친목 나들이: 일시-3일<수> 오전 9시 출발
대상과 배양사, 회비-3천원, 입장료·도시락 지참
 - 자모회 모임: 11월 9일<화> 오전 10시
 - 전례담당: 독서-①김낙균 ②차수열
- 지난주 봉헌금: 219,065원 교무금: 133,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렴

-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전 9시와 오후 7시30분
 -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①박병열 ②이원일
기도-김수열·이은자
 - 차주전례: 해설-이귀래, 독서-①송용호 ②백시현
기도-이강호·임경주
 -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오전 6시(전과 같음)
저녁미사-오후 7시(주일·화·목·금·토)
 - 미사 안내: 금주-정공순·이정숙·나홍덕·육누리·아침주-이경희·권영숙·서숙자·정금순
- 지난주 봉헌금: 381,280원

(전동)

전화 신부 ⑩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⑩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⑩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본당신부님 일본 성지순례: 끝배신부님 시성 참가차
 -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유아세례: 다음주 8시30분 미사 후
 - 성화회 야유회: 11월 7일, 고창 선운사, 7시50분 성당 출발
 - 본당 미사없음: 8일 저녁~12일 저녁
 - 가정방문 일정: 11월2일-다가동·경원동, 3일~4일-남노송동, 16일~19일-풍남동, 23일~26일-전동·서교동
 - 성령세미나: 11월 15일~21일, 저녁 7시~9시, 강당
 - 성서강의: 공식미사 후, 강당, 양현홍 선생님 강의
 - 젊은이 성가대 정기총회: 11월 4일 오후 7시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배양주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서정숙, 독서-①김홍기 ②김동연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516,240원

(파티마)

신부 ⑩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⑩4804 사도회장 황희상

- 오늘 주일학교 아동 소풍의 날입니다
 - 오늘 어린이미사 없음: 3시 30분 미사
 - 미사가 없읍니다: 이주일동안(월요일-금요일 까지)
 - 섬기기사회 첫 토요일: 다음 토요일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 영성성월: 성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평신도 대회: 해성학교 강당 지정된 분를 참석바람
- 지난주 봉헌금: 156,390원 교무금: 169,000원
어린이 전교회금: 10,000원